

# CULTURAL CENTRE IN BOURG-LA-REINE

부르 라 레인 문화센터

Dominique Coulon & Associates / Dominique Coulon  
도미니크 콜론 & 어소시에스 / 도미니크 콜론







The Cultural Centre in Bourg-la-Reine lies on a narrow plot right next to a high embankment upon which a regional trainline runs. This plot is L-shaped and leads out onto a small road hidden away. To build a public centre, such a plot seemed far from ideal.

So building an edifice on this plot called for a design with which the structure could stand out as a public building and find a legitimate place between the vegetation-covered embankment and the neighbouring homes.

The watchword in this programme was connection. Indeed, we had to relate many spaces with highly varied purposes to each other. These spaces included a 250-seater theatre and its dressing rooms, two dance studios, rooms devoted to languages and music, an exhibition space, rooms for adolescents and activities for parents and children, workshops for stringed instruments and visual arts, a learning kitchen, a bar and, lastly, an administrative hub.

For us, a programme as rich and as quality-oriented as this one had to find spatial expression worthy of it.

So we paid particular attention to the quality of the collective spaces. In doing so, we placed the building's entrance hall in the curve of the road so that the edifice's two sections, following the plot's shape, would join in an open space that would encourage encounters while offering views of the adjacent vegetation through glazing.

The open spaces implicitly join the different rooms together to make them relate to each other better. The strangeness of the plot's geometry prompted us to create an arrangement of oblique forms and folds that intertwine.



**Location** 11 rue des Rosiers, 92340 Bourg-la-Reine, France

**Function** Cultural facility

**Bldg. area** 2,550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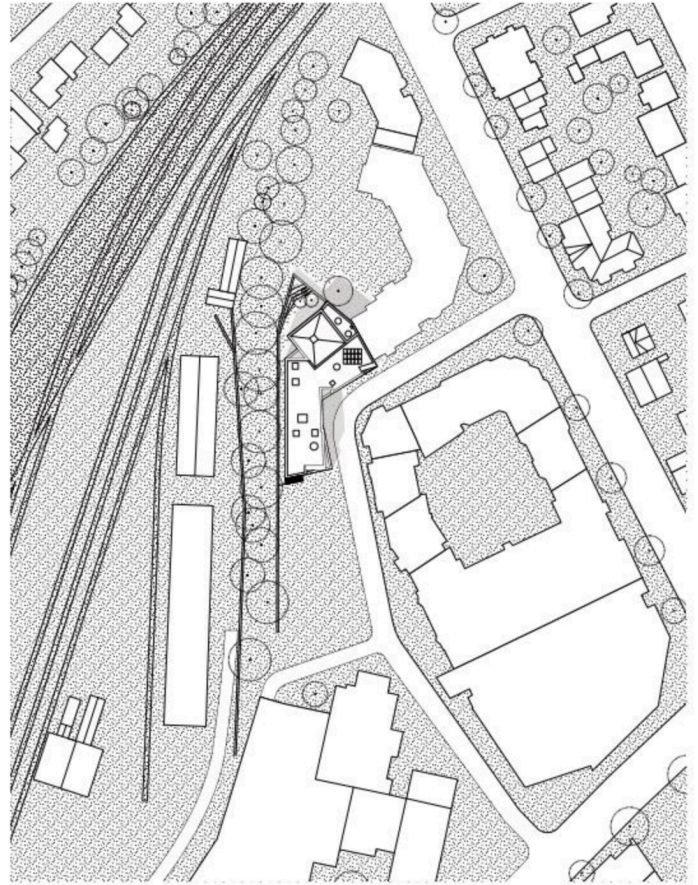
**Photographer** Eugeni Pons

**위치** 프랑스 부르 라 레인 92340 로지에르 11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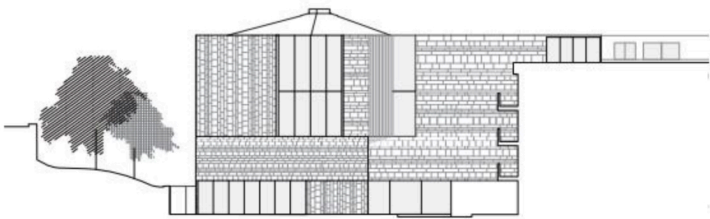
**용도** 문화시설

**건축면적** 2,550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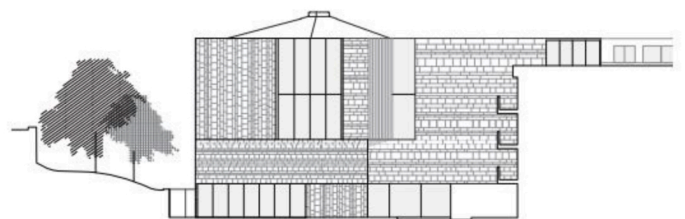
**사진** 유지니 폰스



Site plan



Elevation I



Elevation II

부르 라 레인의 문화센터는 지역 열차가 지나가는 높은 독 바로 옆의 좁은 부지에 자리하고 있다. 이 부지는 L자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쪽 끝은 외진 작은 도로로 연결된다. 공공 센터를 건립하기에는 그다지 이상적이지 않은 부지처럼 보였다.

따라서 이 부지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공공 건축물로서 돋보이면서도, 녹지로 덮인 독과 인접한 주택들 사이에서 정당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개념은 '연결'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용도로 쓰인 다양한 공간들을 유기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간에는 250석 규모의 극장과 분장실, 두 개의 댄스 스튜디오, 언어 및 음악 학습실, 전시 공간, 청소년 공간,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활동실, 현악기 제작 및 미술 작업실, 교육용 주방, 바, 그리고 행정 업무를 위한 공간이 포함되어야 했다.

우리에게 있어, 이처럼 풍부하고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그에 걸맞은 공간적 표현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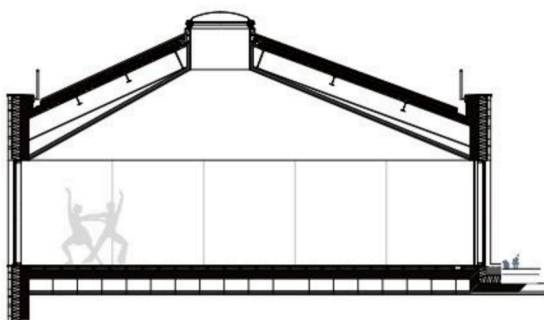
기울었습니다. 이를 위해 건물의 진입 홀을 도로의 곡선 부분에 배치하여, 부지 형태를 따르는 두 개의 건물 매스가 하나의 열린 공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공간은 사람들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유리창을 통해 인접한 녹지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 열린 공간들은 다양한 실들을 암묵적으로 연결하여 서로 더욱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한다. 또한, 독특한 부지의 형태는 우리에게 비스듬한 형태와 접힌 구조가 서로 얹혀 있는 구성을 만들도록 유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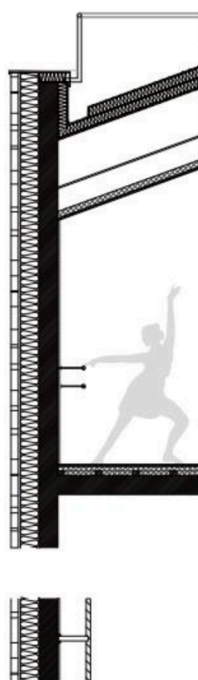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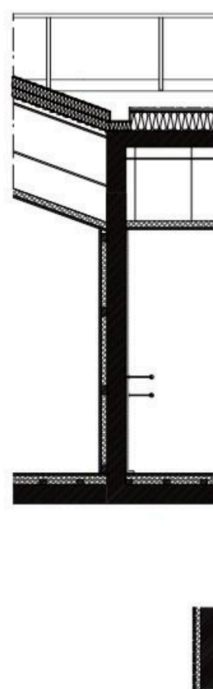




Detail section I



Detail section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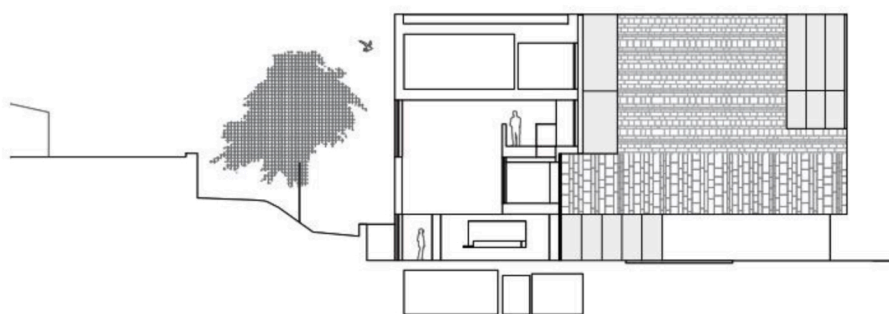




Section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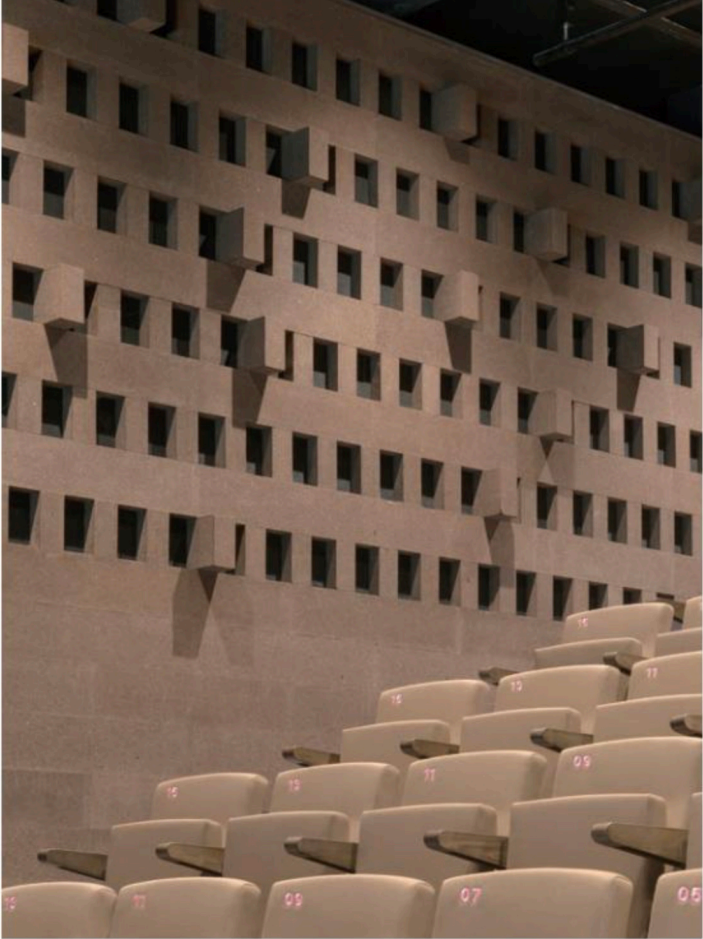


Section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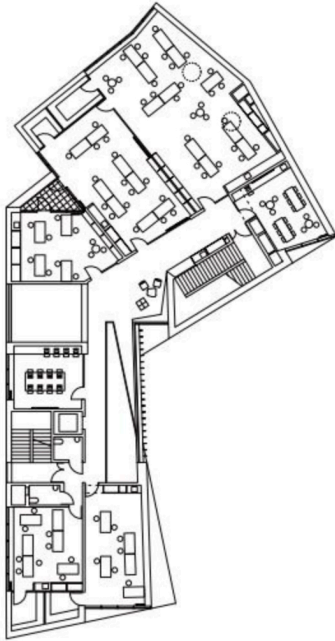


Section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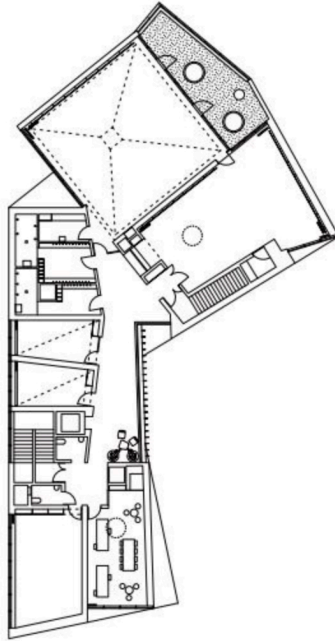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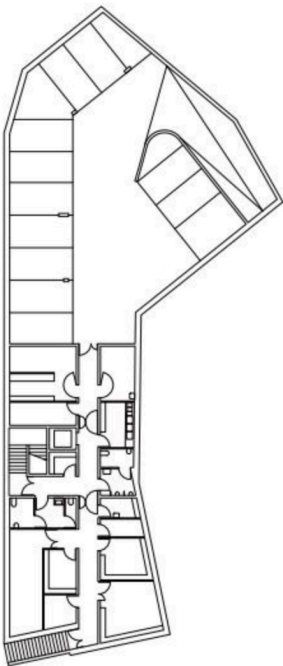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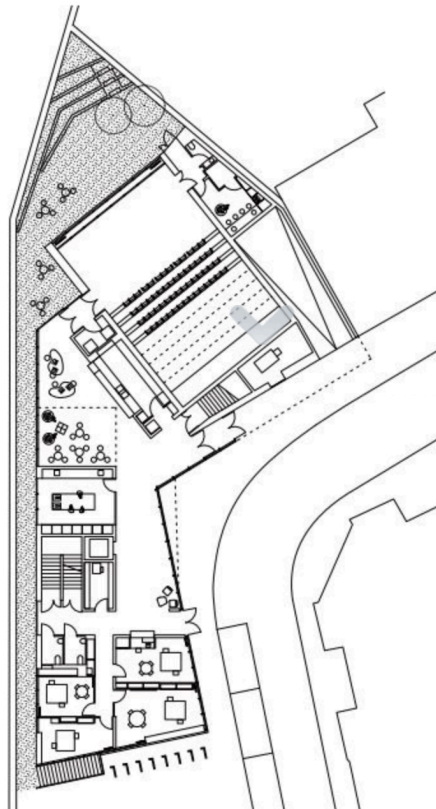
3r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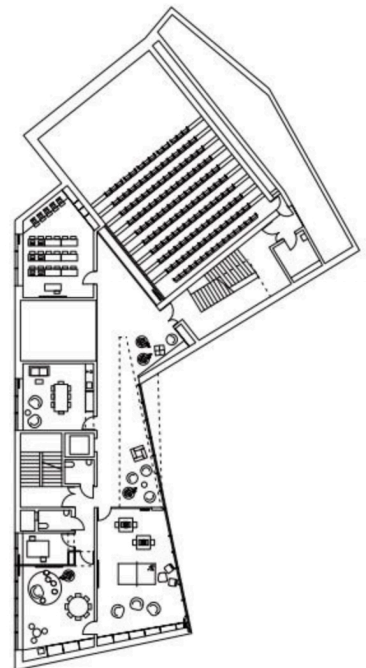
4th floor plan



B1 floor plan



1st floor plan



2nd floor plan



# NEW NEW WORK PROFILE WORK



## P.74 / Cultural Centre in Bourg-la-Reine

**Dominique Coulon & Associates / Dominique Coulon + Letho Duclos**

Dominique Coulon was born in the Jura region of eastern France in 1961 and studied architecture in Strasbourg and Paris-Belleville. After graduating in 1989, he set up his office in Strasbourg, in eastern France. In 1991, he won the Villa Medici Hors les Murs award and travelled in the United States, Latin America and Europe.

Refusing to be limited by a pre-established method, Dominique Coulon seeks to explore different ways of approaching projects in order to rethink spaces and uses.

He is spurred on by his reflexive and philosophical approach to design buildings that reflect spatial complexity. Considering this complexity is an approach that gives the architect the freedom to deal with the heterogeneity of the project's data, to construct unity. In this way, using an intuitive process that greatly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place, his architecture is always composed of dynamically imbricated elements.

In 2022 he was awarded the Golden Medal by the French Academy of Architecture.

**도미니크 쿨론 & 어소시에츠 / 도미니크 쿨론 + 레토 듀클로스**

도미니크 쿨론은 1961년 프랑스 동부의 주라 지역에서 태어나 스트라스부르와 파리-벨르빌르에서 건축을 공부했다. 1989년에 졸업한 후, 그는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에 개인인 사무소를 설립했다. 1991년, 그는 빌라 메디치 호르 레 머스 상을 수상하고, 그 후 미국, 라틴 아메리카, 유럽을 여행했다.

도미니크 쿨론은 미리 정해진 방법에 제한되지 않으려 하고, 프로젝트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을 탐구하여 공간과 용도를 재구성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공간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건축물을 설계하려는 반성적이고 철학적인 접근 방식에 의해 자극을 받는다. 이 복잡성을 고려하는 접근 방식은 건축가가 프로젝트 데이터의 이질성을 다룰 자유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통합성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장소의 특성에 크게 의존하는 직관적인 과정을 사용하여, 그의 건축은 항상 동적으로 얹힌 요소들로 구성된다. 2022년, 도미니크 쿨론은 프랑스 건축 아카데미로부터 금메달을 수상했다.